

너와 나의 사이,
동행
동생
행복도우미



너와 나의 사이,
동행 동생
행복도우미



동행

관계 맺기 연습, 서울동행프로젝트!

봉사활동은 정해진 기간도, 틀도, 끝도 없다. 평생을 두고 하는 것이며, 쌓이면 쌓이는 대로 좋고, 보란 듯이 쌓이지 않아도 그만이다. 우리는 그동안 채워야만 하는 봉사활동에 너무 익숙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연간 20~6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만 했고, 자유와 자발성의 상징인 대학에서조차 졸업학점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 해외봉사는 자랑스러운 스펙이 된 지 오래다. 자원봉사의 첫 번째 글자. '자(自)'는 스스로 자임을 수없이 교육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원치 않는 봉사시간을 억지로 채웠던 것이다.



시간을 위한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시간을 위한 봉사활동은 아름답지 않다. 지속될 수도 없다. 봉사활동은 시간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많은가, 누가 더 잘했나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누가 더 조용히 오래 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봉사활동 그 자체의 의미를 온전히 구현하는 활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목차

05 여는 말

1장. 동생과의 만남

08 유튜브로 쌓는 우리들의 우정!

10 천지창조, 수학에 눈을 뜨다!

12 시작이 좋아!

2장. 친구와의 만남

14 우리가 만든 활동, 사회를 바꾸는 첫 걸음!

16 조원들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고, 배우다!

18 '같이'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동동동'!

3장. 후배와의 만남

22 제2의 동생들과의 추억, 지친 일상의 힐링!

23 나의 첫 번째 대학생 선생님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제자!

24 추격자...!

4장. 동네와의 만남

28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르지 않아요!

30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

32 청소년들의 그린스팟, 힐링가든!

34 맺음말

시대를 앞서가다

우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일회성, 단기성의 봉사활동을 찾아 중구난방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두 번 하는 봉사활동에서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고, 누군가를 알아갈 수 있겠는가? 요즘의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이 세대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모임, 개인적인 참여를 선호한다. 그렇기에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동행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앞질러 가고자 한다. 점점 관계 맺는 것에 부담감, 아니 두려움(?)마저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한 학기 또는 그 이상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인 관계 만들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사람, 추억, 행복!

실제로 동행프로젝트에 오랫동안 참여하여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대학생에게 '나에게 동행이란?'의 질문을 던지면 이구동성으로 '사람', '추억', '행복'을 말한다. 동행 소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해외봉사를 함께 준비하고 다녀온 친구들, 동행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졸업생들까지 동행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관계를 채워가는 봉사다.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은 시간이라는 얇매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즐거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간만 채우는 봉사가 아닌,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봉사활동이 되길 바란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동생과의 만남



동 동생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
행 행복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나에게 동행이란
동생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짐입니다.

유튜브로 쌓는 우리들의 우정!
차의과대학교 정유진

천지창조, 수학에 눈을 뜨다!
아주대학교 이정화

시작이 좋아!
단국대학교 오한슬

유튜브로 쌓는 우리들의 우정!



차의과대학교
정 유 진

“선생님, 이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계상초등학교 돌봄교실 봉사를 하던 중 유신이가 꾸뽀꾸뽀 찾아와 말을 건다.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자신의 핸드폰을 나에게 내어 보인다. 핸드폰 화면에는 유튜브의 한 ‘알까기’ 게임 플레이 영상이 뜬다. ‘이게 뭐야?’라고 묻자, 유신이는 수줍게 해당 영상을 조잘조잘 설명한다.

유신이의 설명을 들으며, 이 영상이 무엇인지 곧 알아챌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은 자신이 직접 플레이한 게임 영상이고, 자신의 목소리까지 입혀 SNS 공간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유튜브를 처음 해보는지 영상미는 제로에 가까웠고, 촌스러운 구석이 톡톡 뽕졌다. 목소리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듯한 앳된 목소리가 담겨 있다.

‘벌써부터 유튜브에 자신의 동영상을 올리다니...’라는 감격스러움과 함께 놀라웠던 한 아이의 동영상에는 대중들이 ‘좋아요’를 눌러줄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 차 있다.

유신이의 귀여운 행동에 웃-하고 웃음이 났다.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말을 걸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 혹시나 이런 것은 왜 만드느냐며 핀잔을 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하진 않았을까. 아이가 부탁조로 말하는 목소리에는 풀이 죽어 있었지만, 꽤 용기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동행 선생님이 그 대단한 ‘좋아요’를 눌러줄 것이라는 찬란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당연히 눌러줘야지! 이런 건 또 어디서 찾았대? 대단하네!”

한껏 유신이의 자신감을 높여 주고 싶은 마음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며 해당 동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게시물 정기 구독도 신청해 주었다. 아이가 무언가에 흥미를 품고 어떤 행동을 취한 열정이 참 예뻐고 그 마음이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그렇게 봉사가 끝났고 유신이의 동영상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꺼냈다. 봉사를 하던 중이라 자세히 보지 못했던 동영상을 이번에는 좀 더 꼼꼼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해당 영상을 틀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영상의 아래에 있는 댓글을 발견하였는데, 댓글에는 ‘완전 동영상 못 만든다’, ‘이런 퀄리티로 만들 거면 올리지 마라’ 등의 악성댓글이 달려 있다. 한 아이가 참 열심히 만든 동영상에 마음을 쿡쿡 찌르는 댓글을 단 네티즌의 말들에 괜히 마음이 미어졌다. ‘유신이가 상처받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자, 해당 동영상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와~ 알까기 참 재밌게 하네! 너 진짜 게임 잘하더라!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줘~_~’

‘알까기 동영상 이번에도 올렸네! 알까기에 자신이 있나보다! 멋있어~’

‘레드팀과 블루팀의 전쟁이라니... 너무 궁금하당. 동영상 보기 전에 댓글 다는 센스! 선생님 센스쟁이잖아~_~’

‘쥬라기 월드 게임도 할 줄 알아? 멋지당~~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해!’ 참 낯간지럽지만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며 최대한 유신이가 보면 행복해 할 댓글을 잔뜩 달아주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주일이 흐르고 돌아오는 목요일, 계상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힘껏 문을 열었다.

“선생님! 저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웬걸?!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몇 명의 아이들이 나를 향해 달려 나온다. 어째 평소 놀아줬던 때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이들. 그렇게 선생님의 ‘좋아요’를 받고자 나에게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다가와 자신이 만든 영상을 구독해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그리고 한 구석에는 유신이가 나를 향해 방긋 웃음을 짓고 있다. 그러면서 내게 말을 건넨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쓴 댓글이죠?’

유신이가 내가 단 댓글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졌다. 유신이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벌써 돌봄교실 친구들에게 해당 댓글을 자랑한 모양이다. 돌봄교실 친구들은 유신이가 부러웠는지, 나에게 다가와 ‘좋아요’ 구걸을 한다. 그렇게 아이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차례차례 해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동행이라는 게 새삼 어렵지 않음을 느낀다. 어쩌면 아주 쉬운 것일지도 모르는데,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며 봉사를 할 때마다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지나 고민을 했던 때도 적지는 않다.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가져다주며 보내는 시간, 그렇게 타인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후 아이들에게 ‘좋아요 왕’으로 불리며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튜브로 쌓는 우정의 정석이 아닐까?

My A T H

천지창조, 수학에 눈을 뜨다!

●



아주대학교
이 정 화

나는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다. 하지만, 입시전쟁을 치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공대에 진학해있었고, 그렇게 꿈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동행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처음에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남고생 5명이 푹망푹망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여대생이 남고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많은 긴장을 하고 갔지만, 내 '첫 제자들'은 나를 진심으로 선생님으로서 반겨주었다. 내 수업의 판서를 모조리 받아 적고, 수업시간에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해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수학을 매개로 '소통'을 하고 있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수학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다. 첫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수학을 좀 더 편하게 바라보는 법을 곰곰이 생각해보곤 했다.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5등급에서 1~2등급으로 올려본 경험이 있어서,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 중요 개념들을 '소통'하면서 매 수업을 준비했다. 또한, 중학교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 개념부터 짚고 다시 배우던 것으로 넘어 가는 방법도 사용하곤 했다.



그러던 중 중간고사 바로 직전 수업이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한 시간 더' 해달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수학을 굉장히 기피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느새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의 매주 발전하는 모습, 태도에 너무 뿌듯해서 점점 더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게 되었다. 어느새 '동행'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있었다.

또 어느 날 수업에서는 어떤 학생이 꽤나 풀이가 긴 문제를 3초 만에 풀었다고 하길래, 나와서 풀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푸는 모습에 "이건 '천지창조'급 발전이야!" 하면서 그 학생을 무한 칭찬 해주었다.

이 사진의 첩판 내용을 보면 이 때 "학생답안 vs 해설답안" 비교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매주 느끼는 거지만, 수업을 할수록 내 제자들은 수학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 보인다. 어느새 학생들은 동행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피하던 수학을 점점 느끼고 있고, 나는 동행이 요즘 내 삶의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서로에게 동행이 '천지창조'급의 파급력을 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

이 사진은 천지창조를 오마주한 사진이다.

그 이유는, 동행을 하면서 나도, 학생들도 '천지창조'급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포즈와 학생들이 학생을 들고 있는 포즈는, 멘토와 멘티가 서로 소통하는 동행, 그리고 서로 협동하는 동행 시간을 의미한다. 남고 특유의 활발함과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한 사진이기도 하다.

시작이 좋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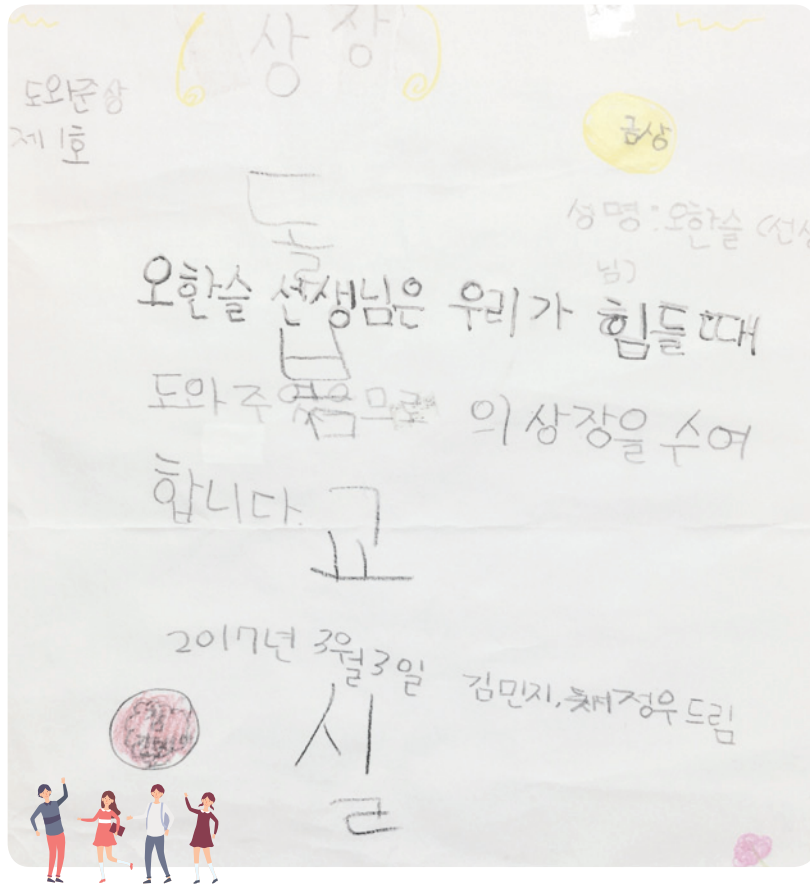


단국대학교
오 한 슬

3월 3일! 동행 동생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내가 과연 교육에서 배운 것과 같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동생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등등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 들어간 순간 동생들은 나를 반겨주었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동생들도 있었다. 내게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지만 동생들은 고마워했고, 봉사가 끝날 때 쯤 무언가를 만들어 내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도돌 말려있는 종이를 펴보니 상장이었는데, 상장을 읽어보면서 나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보람과 성취감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나에게 동생들의 첫인상은 '시작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고, 언제 생각해도 감동인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친구와의 만남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

다양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곳

우리가 만든 활동, 사회를 바꾸는 첫 걸음!
서울여자대학교 홍서정

조원들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고, 배우다!
한양대학교 안수현

'같이'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동동동'!
동덕여자대학교 이하진

우리가 만든 활동, 사회를 바꾸는 첫 걸음!



서울여자대학교
홍 서 정

나는 동행프로젝트에서 작년에 그루터기로 서울여대 단장을 했고, 부단장, 그리고 소모임 친구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기획봉사 사업공모'를 보았고, 지원을 하였다. 사업공모를 위해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 내용과 예산을 주 단위로 나누었으며,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요처를 구해야 했다.

더 많은 인원들과 좋은 일을 함께 하고자 홍익대 동행 소모임과 연합하였고, '다문화 가정에 먼저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가자'는 주제로 활동을 기획하였다.

부단장이 개인적으로 봉사를 했던 인연으로 '노원 평화사회복지관'이 수요처로 연결되었고, 최종 공모를 하여 기획봉사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다.

기대감을 안고 들뜬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아이들이 워낙 단기로 봉사를 오는 대학생이나 단체를 많이 겪어 초반에는 낯을 가리기도 하고 마음을 열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수요처의 학생이 아닌 우리 동생이라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마지막 활동 때는 아이들이 먼저 같이하고 다가왔다. 활동이 끝난 후 소모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동행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기획봉사'를 꼽았다. 그러면서 기획봉사에서 만난 이 아이들을 내년에도 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복지관에서도 이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아이들과 유대를 가지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올해도 '노원 평화사회복지관'과 함께 '나, 너, 우리'라는 주제로 기획봉사 사업을 지원하여 선정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캠프를 가게 되었다.

작년에 함께했던 아이들이 일 년 만에 키가 쑥쑥 자란 모습을 보니 반가웠고, 오랜만의 방문에 조금은 긴장했었는데 "백현 마누라 쌤! 또 오셨네요!"라고 말해주면서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작년에는 복지관 내에서 계획된 활동만 하고 끝이었지만 캠프에서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 좋았고, 서로 먼저 하려고 싸우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했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의견을 내거나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모습에 뿌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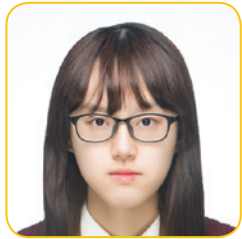
나는 학교에서 '바롬'이라는 사회문제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선을 위한 나의 작은 움직임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그리고 동행 기획봉사는 이 배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서울여대 소모임 친구들은 '동행프로젝트 기획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정신적 교감을 하고, 학교에서 습득한 배움을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나는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노원 평화사회복지관'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



✂ 조원들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고, 배우다!

•



한양대학교
안 수 현

2017년 여름. 나는 서울동행프로젝트 주관 몽골해외봉사 11기의 과학조원으로 참여했다.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첫 비행기 체험이자, 첫 해외 경험이었다. 몽해봉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달가량을 긴장 속에 살았다. 매주 두 번씩 열리는 회의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몽골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두 달의 준비가 무색하게도 몽골에 도착한 나는 엉망진창이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인해 초콜릿 바만 먹으면서 버틴 날도 많았다. 그에 비해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진행되는 수업과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예민해지는 나를 보는 것이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순간들의 연속이었기에 고슴도치처럼 잔뜩 날이 서 있는 채 몽골에서 14박 16일을 보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본 몽골에서 촬영한 사진 속 제 얼굴은 긴장한 채 굳어있는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해외봉사를 끝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조원들 덕이었다. 자신들도 힘들고 예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하고 챙기려 하였다.

내가 담당한 수업을 진행하던 날. 두 달 동안 준비하고 수도 없이 많이 연습했던 수업이었음에도 난항을 겪었다.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과 수업 진행방식까지 예상했던 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때, 다른 조원들이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날, 조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업은 엉망이 됐을 것이다.

몽골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그 날은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다.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내려오는 건 최악이었다. 번덕스러운 몽골 날씨가 하산하던 중 소나기를 내렸다. 급한 경사와 미끄러움은 최악의 조합이었다. 나는 산을 내려가는 내내 미끄러지기를 반복했고 넘어지기까지 했다. 이윽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언제까지 내게 힘든 일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생각이었다. 몽골에서 어떤 순간보다도 힘든 순간이었다.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산에서 내려왔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느릿느릿 걷는 나를 기다려 같이 산에서 내려와 준 조원들 덕이었다.



해외봉사는 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해외봉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값진 경험을 할 것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말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조원을 통해서 배우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조원을 통해 배우고, 타인과 나누려 하는 조원을 통해 나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해외봉사에서 돌아온 지 4개월이 돼가는 지금. 해외봉사의 경험은 큰 자랑거리다. 내게는 이렇게 좋은 언니, 오빠들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고, 그때의 경험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는 그때를 돌아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나를 아껴준 언니, 오빠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내가 언니, 오빠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같이'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동동동'!

●



동덕여자대학교
이 하 진

2015년 말 동행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교내 소모임인 동덕 동행 동아리(이하 '동동동')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들어온 부원이었음에도, 많은 소모임원들이 신입이었던 나를 잘 챙겨줬다.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시작해 2016년에도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동행 그루터기 부단장을 했으나 전공 실습, 다른 교내 활동 등으로 바빠 소모임 활동은 많이 못했다.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 2017년에는 좀 더 알차게 소모임을 이끌고 싶어 그루터기 단장까지 하게 되었다.

2017년 한 해는 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다.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년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동동'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일도 했지만, 그만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다.



2013년,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소모임원들이 졸업을 하거나 휴학을 하면서, '동동동' 활동에 참여하던 기존 인원이 많이 줄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정말 '동동동'이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해준 고마운 소모임원들, 그리고 작년의 나와 같이 올 한 해가 매우 바쁠 예정이었으나 동행에 대한 애정 하나로 함께 활동을 하겠다고 말해준 부단장 덕분에 나도 마음을 다잡고 올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모임 규모도 이전에 비해 2배 정도 더 커지고, 소모임 내 친목 활동과 타 학교와의 연합 활동도 많이 하였다. 새로운 친구들이 소모임에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소모임 내 조를 구성하여 조별 친목 활동을 하도록 했고, 성



년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는 사비로 꽃도 챙겨줬다. 간식행사에서는 손 글씨로 개별 쪽지까지 써가며 포장을 해줬던 기억도 있다.



이런 진심을 알았는지, 이전에 비해 소모임원들이 활동에 많이 참여했다. 작년부터 활동하던 소모임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모임원들까지 열심히 참여해줘서 많이 고맙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모임원끼리 매우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심이 통하면서 서로 다른 학과, 다른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친해졌다. 내가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고 이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서로가 더 친하다.



누구나 처음은 각자의 동행 활동에서 시작한다. 사회봉사(교육봉사) 이수를 위해 시작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해보고 싶어서 할 수도 있다. 동행 활동은 개별적인 활동이기에 활동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동행 활동도 끝나기 마련이다. 특별한 추억도 없이 말이다. 나도 그럴 뻔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교내 소모임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얻을 수 있었다. 소속감을 얻으니 당연히 스스로가 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



고, 그걸 계속 이어갈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것까지. 나는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나와 같이 동행, 그리고 소모임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스스로의 자부심을 넘어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올해의 동행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행 활동은 나의 대학 생활 4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동안 교내 동아리, 위원회 등 많은 활동을 했으나 동행만큼 내게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행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활동이었고, 인간관계에 지친 내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많은 위로를 준 활동이기도 하다. 특히 나에게 '같이'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소모임 '동동동'은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와 같다. 앞으로 내 삶에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의미 있는 해는 없을 것 같다.

...

후배와의 만남



타임머신입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다시보게 하는 시간

제2의 동생들과의 추억, 지친 일상의 힐링!

송실대학교 석주희

나의 첫 번째 대학생 선생님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제자!

건국대학교 신범식

추격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유수형

제2의 동생들과의 추억, 지친 일상의 힐링!

•



송실대학교
석 주 희

나는 살면서 '꾸준히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자'는 신조에 따라 대학에 와서도 봉사활동을 해왔다. 휴학 후 어떤 봉사를 할지 고민하다 모교에서 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된 동행은 '한 학기만 더, 한 학기만 더'라며 4학기 째 활동을 하고 있다.

동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2의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추억들을 쌓았고 감동뿐만 아니라 진정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 생활에 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는 매주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많았던 동행!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추천하고 싶고, 4학년이 되면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 아쉽지만 아직 남은 동행 활동에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



나의 첫 번째 대학생 선생님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제자!

•



건국대학교
신 범 식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왠지 모를 설렘을 전해준다. 나의 '첫' 동행 활동 역시 설렘으로 가득했다. 나의 첫 동행은 모교에서의 교육봉사였다. 고등학교 시절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모교에 간다는 것은 더욱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다. 나의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기특하다는 듯 나를 격려해주셨다.

처음 담당 학생과 만났던 장소는, 내가 학교를 다니던 때 동행 수혜학생으로 앉아있었던 바로 그 곳이었다. 그 시절 나는 멍뚱뚱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선 대학생 선생님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와 같은 어색한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한 학기 동안 나는 동생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공부를 도와주는 선생님보다는 학교 선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생활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며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 친구와 함께하면서 이따금씩 몇 년 전 내가 대학생 선생님과 마주앉아 공부하고, 떠들고 놀았던 그 순간들이 오버랩 되었다. 어쩌면 이 친구는 과거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봉사 기간도 끝이 났다. 그 후 우리는 가끔씩 안부를 묻는 형 동생 관계가 되었다. 가끔씩 연락하며 진로 상담도 해주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나와 함께했던 시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이 친구도 대학생이 되어 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동생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얼마 전, 동행프로젝트에서는 동문회 행사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동행 프로젝트와 함께해온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자는 의도였다. 나는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문득 그들이 떠올랐다. 나에게 동행을 알려준, 나의 첫 번째 대학생 선생님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선생님이 된, 나의 첫 번째 제자. 동행을 하면서 이 둘은 나의 큰 자량이 되었다.



이처럼 나에게 동행은 단순한 교육봉사활동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추억을 공유하는 삶의 이야기가 되었다. 앞으로 동행을 시작할 누군가에게도 동행이 좋은 기억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

추격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유수형

동행프로젝트에 대한 첫 기억은 겨울바람이 여전했지만 햇살은 따스했던 2월의 어느 날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교직생활 처음으로 부장이라는 보직을 달고 새 학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부담감으로 가득했던 봄 방학 중에 열린 간담회였다.

평소라면 '방학에 무슨 간담회람?'이라며 툭툭거렸을지도 모르지만 전임자가 넘겨준 자료를 봐도 여전히 멘토링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던 때라 차라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에 방문한 서울시교육청 주변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내가 그 근처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에 감회는 더 새로웠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서 나는 용기를 얻고 돌아왔다. 다들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한 학기를 시작한다는 동질감과 함께 준비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되자 이 작은 자신감은 무너졌다. 멘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멘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과

후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고, 간식으로 회유하고, 훈남훈녀 대학생 누나 오빠들이 올 거라는 유혹을 거듭하며 멘티 학생들을 모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어 종례가 끝나기를 기다려 멘티 학생들을 '잡아'두는 과정을 몇 주간 반복해야 했다. 그 때 나의 별명은 '추격자'였다. 그렇다, 하정우, 김윤석 주연의 그 영화 말이다. 아이들은 나만 보면 뒷걸음질 쳐서 '저 오늘 못해요!'를 연발했으니... 그럼에도 아이들은 성실한 멘토 선생님과 나의 추격에 감동(?)했는지 4월이 되자 추격하지 않아도 '오늘 멘토링 하는 날 맞죠, 쌤?'하며 학교에 남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에 왔던 훌륭한 5명의 동행 멘토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멘토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자기주도 학습반을 운영한다. 중학교 학생들이 매주 이틀이나 8시 가까이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이 어찌면 다른 분들에게는 신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매 학기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반을 신청한다. 그 날 배운 것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화요일 자기주도 학습반을 담당했던 성신여대 엄혜윤 멘토는 수업이 시작하기 30분전에 와서 학생들이랑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상담해주며 때로는 누나처럼, 또한 수업 중에는 수학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수학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 늘 하던 일만 사무적으로 해치우던 현직 교사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엄혜윤 멘토가 교사의 꿈을 이뤄서 꼭 훌륭한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에게 행복과 좌절을 동시에 느끼게 했던 1학기 동행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지금은 2학기 동행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서투른 점이 많아 허둥댈 때도 있지만 지난 학기를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로 더 많은 학생들과 수업 외에 더 많은 부분에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고 나누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아이들이 타인과 교감하며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로서 내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동네와의 만남



활력소,
에너자이저, 오로나민C
안 했으면 평생 없었을 경험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르지 않아요!
공립벤엘지역아동센터 김지영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
서울여자대학교 김용은

청소년들의 그린스팟, 힐링가든!
늘푸른자립학교 김지하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르지 않아요!

공립벨엘지역아동센터
김 지 영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봉사를 계획하였다. 선정이 되고 나서 평소에 관계를 맺고 있던 학교와 장애인센터 등에 취지를 설명하고, 공고문을 만들어 게시하였다. 처음 계획했던 복지관과 학교에서 아동들이 모집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러 장애인 시설에 취지를 설명 드렸고, 시설에서 회의를 거친 끝에 참여 가능한 아동들이 모집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7월 20일부터 난타, 댄스를 각 각 7회씩 진행하였다. 난타에 참여한 외부 아동 A는 보호자가 이동 시 함께 해주었으나, 댄스에 참여한 아동 4명은 이동 시 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실무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동 보조를 하였다.

처음에는 아동들이 장애 아동들을 보고 거부감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비장애 아동들이 장애 아동들에게 댄스 동작을 알려주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은 점차 사라졌다.



7회기가 끝나면 나눔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외부 아이들의 사정으로 방학기간에야 가능하였다. 8월 18일에 1박 2일로 전북으로 나눔 공연 및 체험학습을 떠났다. 임실군에 도착하여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였는데, 치즈가 늘어나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면서 웃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니 나 또한 기분이 좋았다. 이어서 전주 한옥마을 견학을 끝내고 재활원에 도착하여 나눔 공연을 선보였다.



우리의 무대를 보면서 기뻐해주는 장애인 어르신들의 모습에 아동들도 쑥스러웠지만 준비한 공연을 열심히 선보였다. 우리의 공연이 끝나자 재활원에 있는 어르신들도 우리에게 사물놀이와 우쿨렐레를 보여주었다. 그 공연은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 있고 완성도가 높은 공연이었다. 그래서 이 기획봉사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저 무대처럼 우리 아이들도 탄탄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서로의 공연이 끝나고 우리 아동들이 만든 목걸이를 장애인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걸어 드리면서 서로 스킨십을 통해 조금은 가까워 질 수 있게 되었다.

기획봉사를 진행하면서 한 아동의 말이 아직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 저기 계신 어르신이 저 많이 좋아해주셨어요. 제가 목걸이도 걸어드렸는데... 가서 인사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기획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종류의 시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참여 아동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배워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였다. 받는 것에 익숙해진 아동들이 다른 이를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작은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점차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살맛나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꿈꿔본다.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

●



서울여자대학교
김 용 은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처음 진행한건 2016년이였다. 당시 뉴스에서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깔창이나 수건을 대신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서울여대 동행 소모임 안에서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동덕여대와 숙명여대에 연합을 제안하여 총 3개 학교에서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여러 학교와 함께 진행할 프로젝트를 구상하다가 작년의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학 연합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예상했던 것 보다 준비할 것은 훨씬 많았다. 먼저 우리가 기부 받은 생리대를 받아줄 수 요처가 필요했고, 여러 곳에 전화를 하면서 알아보던 중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함께 할 대학을 모집했고, 그 결과 총 13개 대학이 활동을 위해 모였다. 각 대학이 최대한 겹치지 않는 날짜로 이틀씩 활동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받아 5월 한 달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의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생리대를 기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려주는 인식 개선 캠페인 부분까지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홍보물과 캠페인 진행 시 할 이야기까지 확인해야 했다.

개인적으로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은 공학대학의 남학생들의 참여도였다. 그러나 이 걱정은 기우였고, 활동을 진행할수록 염려가 뿌듯함으로 변하였다.



기억에 남는 몇몇 장면들이 있어 이야기해보자면 건국대학교에 도움을 주러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는 동행 친구들이 남학생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줬고, 일부 학생들은 부스를 같이 진행하는 여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들을 물어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깨닫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지나가다 캠페인 설명을 듣고는 학관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생리대를 사서 기부해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스터디에서 함께 모아 내주시는 분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님, 교직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다. 본인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기에 방관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1만개에 가까운 많은 수의 생리대를 기부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것들이 참 많았다. 첫 번째로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 개인으로는 불가능해보이지만 함께 한다면 가능해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답답함을 느꼈다. '월경'이라는 생리적 활동에 대해 무지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함께 변화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5월 한 달 동안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을 시작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점차 널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캠페인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동행 참여 대학생으로부터 캠페인이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원들의 힘이 모여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그린스팟, 힐링가든!

●
늘푸른자립학교
김 지 하

우리 기관은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로 배움과 성장, 자립을 위한 학습(검정고시)지원, 심리·정서 상담, 여행학교, 진로학교, 일 배움터(공방, 자격증반, 마켓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학교를 이전하면서 햇빛이 잘 드는 넓은 옥상이 생겨 늘푸른 친구와 함께 야외활동이 가능한 휴식 공간,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던 중에 서울동행프로젝트 기획봉사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대학생 멘토를 매칭하기 위해 서울의 조경·원예, 인테리어와 관련된 학과에 수 소문을 해봤지만 대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기획봉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그루터기 대학생들을 통해 학과 후배들을 소개받아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학생들과 건국대 학생들을 매칭 하여 '청소년들의 그린스팟, 힐링가든'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다.

늘푸른 친구들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 힐링가든에 대해 소그룹으로 팀을 나눠 기획회의를 진행했다. 전공 대학생들의 전문적인 구상 도면부터 청소년들을 고려한 세심한 부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 텃밭상자를 이용해 허브와 과실수,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생태텃밭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텃밭을 위해 빗물저금통을 직접 만들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해먹, 의자를 배치해 늘푸른 친구들은 물론 지역 내 다른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늘푸른 친구들과 대학생 멘토가 직접 공간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고, 함께 땀 흘려 가꾸면서 소통하는 방법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여름에는 블루베리, 라벤더, 로즈마리 향기가 가득한 옥상으로, 가을에는 썩부쟁이, 구절초, 국화 등의 야생화가 활짝 피는 힐링가든으로 변화했다. 기존의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학교 이전 당시에 반대하던 지역주민들도 방치되고 있는 옥상이 변화하자 베란다 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옥상이 정말 예뻐졌다며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보고 대안학교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한다는 반가운 소식들도 듣게 되었다. 향후 옥상에 힐링가든 카페를 운영해 지역 내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맺음말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 의 욱

자원봉사가 일으키는 변화의 마술

나와 남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못 본 체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치료해 주고, 비용도 지불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다. 자원봉사나 선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고, 미국의 기부 관련법의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법(Good Samaritan Law)’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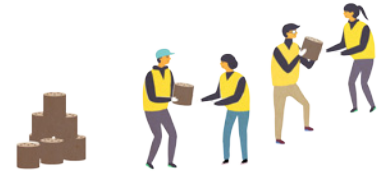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왜 하필 여러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했을까요?” 다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했었기에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 고개를 가우뚱했다. 그때 한 중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마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아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가까운 친구, 친척, 뜻을 같이하거나 일을 같이하는 동료일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남이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이해될 것이다. 이렇듯 남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문제로 보지 않고, 타인의 느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외적인 강제력이나 의무감, 혹은 경제적 이익보다 더 강한 활동의 동력이 생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자발성은 자원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과 가치가 되며, 자발적인 활동을 행한 주인공들은 그 일을 통해서 보람과 더 큰 성취를 느끼게 된다.

우리와 공동체

타인과 깊은 연대가 형성되면 타인은 확장된 나, 즉 우리라는 관계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깊은 연대감과 공동체 정신은 자원봉사가 주는 선물이다. 실제로 자원



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성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람을 느낄수록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지며,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유대감은 새로운 시민사회의 원리로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변화의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이 선물로 주는 보람에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진화할 수 있는 시민적 가치가 맹아적인 형태로 들어있다. 맹아적인 형태는 식물에 비유하면 씨앗과 같은 의미인데,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는 생명체가 되려면 햇빛, 물, 온도가 최적의 조건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에서 평가의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은 발아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은 평가와 회고의 시간이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이 시간은 가장 쉽게 생략되기도 한다. 봉사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끝나면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봉사자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시간은 생략되곤 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의 단편적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해석해 주고, 활동의 과정에서 느낀 것과 알게 된 것을 갈무리하는 평가의 과정이 없다면 봉사활동이 주는 새로운 체험은 단편적인 감정의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단지 정서적인 느낌이나 단편적인 사례에 머물지 않게 해야 한다.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분하게 활동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느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단편적 경험은 우리의 마음 밭에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생각의 잎을 펼치고 자라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열매를 선물로 준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더 큰 존재,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변화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너와 나의 사이,
동행



서울 **동행** 프로젝트
(동행할게드림)



2017 서울동행프로젝트 스토리북

너와 나의 사이, 동행

발행기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편 집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동행프로젝트팀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전 화	02-2274-7306~9
홈페이지	https://www.donghaeng.seoul.kr
블 로 그	blog.naver.com/seoul_dhp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dhp
디자인 및 인쇄	디노디자인 http://www.denodesign.co.k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